

# 서울 일반고 4년제 진학률 ‘최저’ 지방권 기피에 전문대·재수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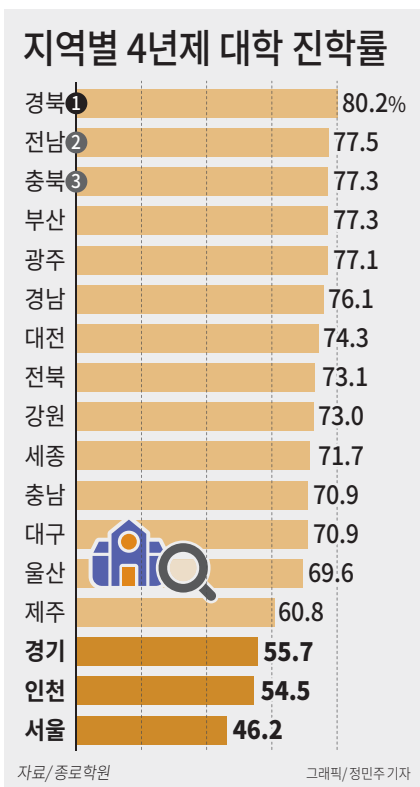
수도권, 대학 집중에도 진학률 낮아  
4년제대 진학률, 경북 80%로 최고  
서울 46%로 최저… 경인권 하위권  
거리·학업비용 부담 등 지방 기피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속에서 서울·경인권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재수(N수)와 전문대 진학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선호라는 단일 요인보다는 지방권 대학 진학에 따른 거리·비용 부담과 생활권 이탈에 대한 기피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4일 2025학년도 전국 일반고 1684개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은 경북이 8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46.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권 학생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됐다.

4년제대 진학 비율은 ▲경북 80.2% ▲전남 77.5% ▲충북 7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 46.2% ▲인천 54.5% ▲경기 55.7% 순으로 수도권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전문대 진학 비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전문대 진학률은 ▲인천 24.8% ▲제주 20.0% ▲경기 19.4% ▲서울 18.0% 순이었으며, 부산은 6.2%로 가장 낮았다.



서울·경인권은 4년제대 진학률이 낮은 대신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은 구조가 뚜렷했다.

시·군·구별 분석에서도 서울의 낮은 4년제대 진학률은 두드러졌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년제대 진학률이 낮은 상위 20개 지역 중 18곳이 서울, 나머지 2곳은 경기 지역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성동구 40.1%였으며 ▲강북구 41.0% ▲서초구 41.9% ▲송파구 43.4% ▲동작구 43.5% ▲구로구 43.7% 등 서울 전반에

서 낮은 진학률이 나타났다. 강남구 역시 44.7%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전문대 진학과 재수(N수) 선택도 서울권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서울권 소재 학생들은 서울에 대학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까운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전문대 또는 재수를 선택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상위권 대학 선호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인권 학생들의 N수 증가는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방권 대학 진학에 따른 거리·학업 비용 부담, 거주지와 먼 대학 진학에 대한 기피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방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학 진학 시 지자체 기숙사 지원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구조와도 대비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과 경인권은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문대 진학과 N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울권 집중 현상 속에서 대학입시의 최대 피해자는 성적대와 무관하게 서울·경인권 학생들로, 이는 특정 교육특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동아대 G-LAMP, 원자·양자 과학기술 개발

메가존클라우드와 산학연 협력  
클라우드 기술 연계, 융합 연구

동아대학교 G-LAMP 사업단이 클라우드 전문 기업과 손잡고 원자·양자 과학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동아대 G-LAMP(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단은 AI·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와 원자·양자 과학 기술 개발, 연구 인력 교류, 산학 공동 연구 및 기술 사업화 협력을 위한 산학연 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초 과학 연구 기반 강화와 클라우드 기술을 연계한 융합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자·양자 과학 분야 기초·응용 기술 연구 개발 및 고급 연구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협력,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세미나·

워크숍·학술 교류 등 공동 학술 행사 기획·운영을 비롯해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진웅 단장은 “메가존클라우드와의 협력은 기초 과학 연구의 디지털 전환과 융합 연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자·양자 과학 기반의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CQO(Chief Quantum Officer)는 “동아대 G-LAMP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을 연구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기초 과학과 산업 기술의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 G-LAMP사업단은 원자·양자 과학 기반 융합 연구와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기초 과학 연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기도, ‘کم업 2025’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2일 ‘کم업(COMEUP) 2025’에 발한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کم업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는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기업 140개, 참관객 5000명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VC, CVC,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투자사가 초청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참가기업 6개 사의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

에는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인베스트 경기’는 도내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와 연결하고 IR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회 IR Day를 운영하며 50개 사의 국내외 투자자를 초청, 63건의 IR 피칭과 92건의 투자 연계를 이뤄냈다.

کم업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국내외 투자자와 도내 기업 간 국가별 투자 동향 공유와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경기도 유망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투자 상담, IR 피칭 등 폭넓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도내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태의 기자 dykimi@

## 12월 화재 절반 ‘부주의’… 난방기 조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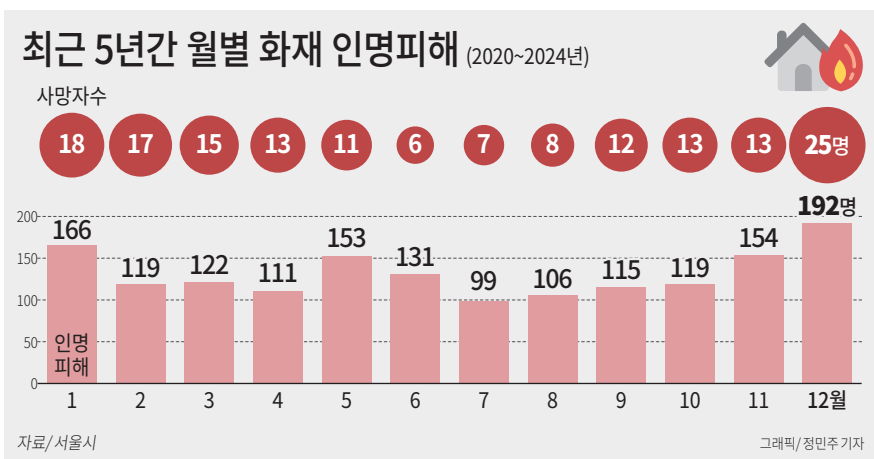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 통계 분석  
12월 전체 화재 53.2% ‘부주의’ 원인  
난방기기 사용 늘어 각별한 주의 필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12월에 화재가 집중되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물 근접 방치와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가 전월보다 크게 늘면서 판매·업무시설과 건축 공사장을 중심으로 화재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본부에 따르면 분석 기간 동안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2517건으로, 전체 화재의 9.4%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 25명을 포함해 총 1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따른 화재



가 1339건으로 12월 전체 화재의 5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연물 근접 방치’는 153건,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는 15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0건(51.4%), 37건(32.7%) 증가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판매·업무시설’이 362건, ‘건축 공사장’이 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92건(34.1%), 22건(52.4%) 늘어난 수치로, 12월 화재 발생 장소 가운데 뚜렷한 증

가세를 보였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2월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 기후로 인해 개인 전열기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보류…“중러 반발로”  
▲미 워싱턴 공항에서 이륙한 UA항공기 엔진 한쪽 꺼져 회항

/사진 뉴시스

▲트럼프, 시리아 IS의 미군 등 3명 살해에 “심각한 보복전” 예고  
▲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기후부, 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논의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 “2025년은 WHO 최대의 도전과 발전의 해”  
▲하마스 “가자지구 진입 국제군은 정전 감시단만 허용할 것”